

# 내수시장 과포화... K-카페, 성장동력 찾아 속속 해외진출

**더벤티 캐나다·베트남 이미 진출**  
**하반기 중 요르단 암만에 첫 매장**

**설빙 프레들리 그룹 산하법인 계약**  
**연내 필리핀 마닐라에 1호점 예정**

국내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들이 포화 상태에 이른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 진출에 속속 나서고 있다. 골목마다 커피 전문점이 밀집해 더 이상 출점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뽕다방, 더벤티, 매머드 등 국내 5대 저가 커피 브랜드의 총 매장 수는 올해 들어 1만 개를 돌파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3000개 미만이었던 매장 수가 불과 5년 사이 세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고물가 속 저가 커피 수요가 늘면서 창업 진입장벽이 낮은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급격한 외형 성장이 이뤄졌지만, 그만큼 시장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



서울 서초구의 한 컴포즈 커피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벤티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진출한 캐나다와 베트남에 이어 최근 중동 요르단의 유력 기업 'JKT NETWORKS'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하반기 수도 암만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이다.

더벤티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르단에서 현지 맞춤형 메뉴와 운영 전략을 도입해 K-Cafe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직영 1호점을 오픈했다. 베트남 MZ세대와 외

국인 거주자가 밀집한 트렌디한 상권에 자리한 호치민 매장은 '울무오트라떼', '퍼플연유라떼' 등 한국적 감성을 담은 메뉴와 로컬 특화 신메뉴를 함께 선보이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더벤티는 국가별 로컬라이징 전략과 SNS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현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한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도 필리핀 현지 외식 기업 '프레들리 그룹(Fredley Group of Companies)' 산하 법인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필리핀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필리핀 설빙 1호점은 연내 마닐라 대형 쇼핑몰 'SM 몰 오브 아시아'에 문을 열 예정이다, 2호점도 마닐라 내에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설빙은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에 진출해 있으며, 향후 싱가포르, 대만,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디야커피는 말레이시아에, 메가MGC커피는 몽골에 1호점을

오픈하며 해외 시장에 나섰다. 컴포즈커피는 싱가포르에서 매장 2개를 운영하며 해외 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컴포즈커피는 최근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졸리비(Jollibee)'에 인수되면서 글로벌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해외 시장 진출이 반드시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커피 시장은 현지 브랜드로 경쟁이 치열하며, 동남아의 경우 로컬 브랜드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 취향도 다양해 메뉴 현지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처럼 아메리카노 비중이 절반 이상 되는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해외는 20~30% 수준에 그쳐 원가 부담과 수익성 관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오가노이드사이언스-원광대, 반려견·축산바이오 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설명회 개최**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논의**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와 함께 첨단 오가노이드 기술 개발 협력을 본격화 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16일 원광대학교가 함께 반려동물 및 축산 바이오 분야에서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체시험법과 맞춤형 치료제 개발, 재생의료 연구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측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연구 협력 제안 수준을 넘어, 학문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실질적인 공동연구 과제 발굴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고 설명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 및 축산업과 같은 응용 생명과학 분야에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지난 16일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가 함께 반려동물 및 축산 바이오 분야에서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산학 협력 기반 마련에 양측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원광대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명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인 총 2670억원 규모의 '생명산업 중심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통합 모델로 선정되며 본격적으로 대학 통합과 혁신 모델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

이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원광대학교의 연구 인프라 및 학제 간 전문성과 연계해 실질적인 기술 실현과 임상 적용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 설명회를 계기로 원광대학교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 기술의 실용화와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공동연구센터 설립, 연구인력 교류, 정기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산학협력 설명회는 전북 지역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그동안 바이오소재, 농생명, 동물의학 등 다양한 바이오 기반 산업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기술의 지역 정착과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유종만 대표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연구지원 수준을 넘어서,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대체시험법'이라는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원광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질환 모델 개발, 축산용 치료제 및 기능성 소재 연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연구책임자 임은경 박사(오른쪽부터), 제1저자 서승범 박사, 이진아 연구원.

**공기 중 항생제 내성균**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다**  
**생명연구 'CN-TAR' 개발**

국내 연구진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항생제 내성균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병원감염 예방과 공중보건 안전망 구축에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 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황정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공기 중의 항생제 내성균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인 'CN-TAR'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원, 공항, 지하철 등 감염 취약지역에서 즉시 진단이 가능한 '현장형 플랫폼 기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가능한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와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는 폐렴이나 패혈증 등 같은 위험한 질병을 유발하고, 기존 항생제로는 잘 치료되지 않는다.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로 널리 알려진 CRISPR-Cas9 시스템을 진단 목적으로 변형하여 박테리아가 가진 특정 유전자를 정확히 찾아 자르고, 그 절단 산물을 실시간으로 증폭하여 빛으로 표시해주는 'CN-TAR'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세경 기자

## GC녹십자, 알리글로 후속 연구결과 발표

**혈액응고인자 등 제거 안전성 향상**

GC녹십자는 미국 뉴저지에서 개최된 '2025 국제혈전지혈학회(ISTH 2025)'에서 면역글로불린 제제 알리글로 후속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GC녹십자가 독자 기술로 혈전색전증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혈액응고인자 등 불순물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

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면역글로불린 제제 점도와 관련된 것으로, 연구팀은 면역글로불린 제제 농도를 표준화하는 측정법을 적용해 제품 간 점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했다. 분석 대상에는 알리글로를 포함해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옥타겔, 개뮤넥신, 프리비젠, 감마가드 리퀴드 등이 포함됐다.

총 5종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점도는 4℃~25℃까지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측정됐고, 모든 제품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청하 기자

## SK바사, 독감백신에 면역증강제 적용

**식약처에 'NBP607B' 임상 신청**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규 독감백신 후보물질 'NBP607B' 임상 1/2상 시험계획(IN D)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NBP607B'는 기존 자체 개발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에 면역증강제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임상 1/2상은 올해 북반구 독감 유행 시즌에 맞춰 국내외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 320명에서 'NBP607B'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

하며, 기하가된 고면역원성 백신을 대상으로 해 비교하는 방식이다. 중간 결과는 오는 2027년 발표된다.

국내 기업이 면역증강제를 활용한 고면역원성 독감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의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NBP607B에는 스위스 비영리 백신 연구기관 '백신제형연구소(VFI)'의 면역증가제를 도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